

660억 전자서명 시장 '들썩'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퇴장... 11월부터 사용 범위·권한 축소 카카오페이·이통3사 '패스'·은행연합 '뱅크사인' 각축 예고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편과 보안문제를 낳았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이름이 바뀌며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1월부터 공인인증서의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앞으로 사설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쉬워지면서 660억원대 전자서명 시장을 겨냥한 민간 서비스가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4418만657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6년 동안 공인인증서 발급은 3380만(2015년)→3540만(2016년)→3790만(2017년)→4010만(2018년)→4190만(2019년) 건 등 매년 늘었다. 공인인증서는 그동안의 독점 체제가 깨질 뿐 '공인'이라는 단어만 지워진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나머지 기업이나 기관이 발행

하는 사설인증서로 나뉘어왔다. 사실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와 이동통신사 3사가 참여한 '패스', 16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뱅크사인'이 주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은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6월 나온 뒤 이달 초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었다. 카카오페이는 앱에서 계좌번호 확인 등 절차 없이 카카오톡 인증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계좌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20일부터 간소화했다. 이동통신 3사(SK·KT·LGU+)의 본인인증 앱 '패스'도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1000만건을 넘겼다.

이 서비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증서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광주은행 등 16개 은행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이용할 수 있는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 평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건수는 1204만건(이용금액 5467억원)으로 전년보다 39.3% 증가했다. 간편결제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건수도 602만건으로 56.6% 증가했고, 이용액도 44.0% 증가한 1745억원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

박석현 광주국세청장, 전주·군산 세정현장 점검

박석현(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일 북전주세무서와 군산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현황, 코로나19 긴급예방을 위한 신고장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박 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능동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했으며,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와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효성ITX, 포스코와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제조·생산·판매 데이터 분석... 생산공정 빠른 의사결정 도움 효성ITX가 스마트팩토리 시장 확대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효성의 IT전문 계열사인 효성ITX는 20일 포스코ICT 판교사옥에서 포스코ICT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남경환 효성ITX 대표이사과 손진재 포스코ICT 사장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제품과 관련된 제조,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생산공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이다. 효성ITX는 2017년 이후 그룹 내 국내외 여러 공장에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오며 섬유·화학·중공업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왔다. 포스코ICT 역시 포스코가 운영하는 제철소에 스마트팩토리를 적용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로 각 기업별 제조업체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전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모두 공유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작업 일정, 실적 집계 등의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과 부품 공급부터 고객까지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SCM, Supply Chain Management), 사용자들이 품질, 공정 관리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각화 분석 시스템(VAS, Visual Analytics System) 등이 포함된다. 남경환 효성ITX 대표는 "양사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를 토대로 시장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고객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 소매판매 증가

코로나19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친 올해 1분기(1-3월) 광주·전남 경제 회복이 었 같았다. 2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년동기비 광공업생산지수는 광주 -1.8% 하락, 전남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비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매 판매액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 -5.6% 감소, 전남 3.9%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매출이 곤두박질 친 데 비해 전남지역에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89.64 (+9.03)	↓ 금리 (국고채 3년) 0.868 (-0.008)
↑ 코스닥 708.76 (+12.40)	↑ 환율 (USD) 1230.30 (+5.00)

광주은행, 지역 어린이에 직업 체험 기회

키즈라라와 업무협약... 화순 테마파크 직업체험실 운영



송중욱(왼쪽) 행장과 최영근 대표가 20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화순 어린이 테마파크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내년 화순에 조성되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직업체험실을 운영한다. 20일 광주은행은 키즈라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키즈라라는 한국관광관리공단, 화순군, ㈜강원랜드가 폐광으로 위축된 화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2 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설립한

회사이다. 광주은행은 협약에 따라 테마파크에 직업체험실 공간을 운영하고, 홍보와 물품지원을 펼친다. 송 행장은 "키즈라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한편, 지역의 명소를 거듭나 지역사회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 애플망고 '오매향' 전국구 진출

농협전남본부 27일 출시 기념회... 올 20t 출하 목표

전남에서 생산된 애플망고가 아열대 농산물 브랜드 '오매향' (사진)을 달고 이달 처음 전국 소비자를 만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0일 영광군 염산면 망고야농장에서 애플망고 재배농업인 10여 명을 대상으로 '오매향' 재배 농가 상품화교육'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본부는 올해 주력 작물인 아열대 농산물 브랜드 '오매향'을 기획하고 첫 품목으로 애플망고를 선정했다. '오매향' 사업에는 영광 등 9개 사군 12개 애플망고 재배농가가 참여한다. 이들 농가의 올해 목표 매출액은 20억원으로, 예상 출하물량은 10~20t이다. 올해 '오매향' 애플망고 재배면적은 전남지역 면적 12만1380㎡의 절반(55.2%)이 넘는 6만7060㎡이다. 전남본부는 오는 27일 망고야농장에서 전국 주요 구매 담당자 90여 명을 초청해 '오매향' 애플망고 출시기념 시·



품평회를 연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 아열대농산물 브랜드 '오매향'은 7개월 동안 개발과정을 거쳐 탄생했다"며 "재배농가들의 수년간 노력이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농협이 마케팅과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월 85~105만원 수익 예상
원금 보장,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수목장 44.2%

남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

남골당 74%

수목장 14%

기타 12%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자료: 보건복지부